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2014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더 이상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합니다.

주최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주관 한국NGO신문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2014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2014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발간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산업현장 내 현실적인 위험요소 제거활동을 지원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파급으로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은 한국NGO신문의 주관으로 진행하여 산업현장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산재장애인연합회 및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의 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들에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상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한국NGO신문 사장상으로 장려상을 상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사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NGO신문의 주관으로 진행된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모전은 건설현장부터 소규모 제조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와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실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가정의 화목, 건강지킴이로서의 안전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모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례집을 통해 안전교육 현장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하여 안전사고 줄이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입상자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더 이상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의 알림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의식 생활화에 기여하며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안전지킴이로서의 선도자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목차

발간사 4

대상

최미선 지게차 충돌사고, 무자격자 음주운전 주의 11
느리다고 얕보단 큰일, 잘 알고 꼭 조심하세요!

최우수상

정범채 통신케이블 전신주 작업, 비오는 날 감전사고 주의 17

조성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19

우수상

차상헌 종합병원 의료장비 폭발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야 25

오주석 작업장에서 정전기 안전사고 화상과 쇼크 주의하세요 27

이성용 롤러기 손가락 끼임사고로 리미트 장치 필요성 실감 29

장려상

박병균	작업현장에서 2인 1조의 중요성	33
김경화	현충일에 전해진 가마의 희생	36
최정윤	안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41
이종윤	눈 똑바로 뜨고 살기	44
김대갑	반장님, 제가 조금 다쳤어요	48
차선미	더 이상 어떻게 안전운전 합니까	56
채승하	지하철 기관사 안전사고 대비	58
최창규	거미줄 전선속에 잡혀있던 위험	60
홍원주	방심이 부른 안전사고	65
박수현	건물철거 현장 골절사고	69
김은진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2
이경민	외양간 고치고 소 지키기	75
박성윤	캐러멜 향기	77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례 83

대상

최미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지게차 충돌사고, 무자격자 음주운전 주의

느리다고 얕보단 큰일, 잘 알고 꼭 조심하세요!

최미선

몇 년 전 장마철의 경험이다. 먹구름 잔뜩 끼고 비 쏟아질 듯한 날씨에 사진작가인 남자친구와 작품 활동을 위해 대부도로 갔을 때라고 한다. 흐린 날씨에 만족스러워하며 한창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소나기가 쏟아지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100미터 앞쪽에 공사장이 보였고 지게차도 보였다.

지게차 운전자는 곧 공사장에서 나오더니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직진을 하더니 결국 친구가 탄 차와 부딪치고 말았다. 굉음에 정신을 차린 친구는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한다. 친구가 탄 차는 지게차에 의해 왼쪽 뒷 자석부터 뒷바퀴의 타이

어가 찢어져 빠질까말까 할 정도의 상태였다.

지게차의 포크(지게차 앞부분 두 개의 철판이 길게 나와 있고 그 부위에 물건을 싣는 곳)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친구일행이 탑승했던 차가 조금만 늦게 달렸다면 친구의 다리가 절단되었을 수도 있던 상황!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몸의 신경들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다.

정말 끔찍한 사고로 연장되었을 법했던 사고,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한 친구일행은 가벼운 타박상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차를 해야 했던 무시무시한 사고로 기억된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알고 보니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약주도 한잔 하신 작업자분 거기에 더해 자격증 또한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었다고 한다.

지게차를 조작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면허 유무 또한 작업완료 후 음주에 의한 사고였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작업자의 태도 때문에 벌어진 그 때 사고를 회상하며 사고위험이 높은 차량인 만큼 운전자의 더 각별한 주의와 프로의식이 있었더라면...하고 많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난다.

다음은 꽤 오래 전 내가 목격한 사고담이다. 어언 7년은 족히 지났을 법한데 아직도 생생한 사고 현장의 기억...

한 여중생이 건너편에서 오던 지게차의 포크부분에 다리가 걸려 공중으로 부웅 뜨더니 바닥에 툭! 그 자리에서 피가 흥건하게 쓰러져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았다.

몇 초도 안되는 순간에 벌어진 사고이다 보니 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다행히 같이 목격한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부르고 여중생 옆을 지켜주며 기다려 주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왔다.

> 지게차를 조작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면허 유무 또한 작업완료 후 음주에 의한 사고였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작업자의 태도 때문에 벌어진 그 때 사고를 회상하며 사고위험이 높은 차량인 만큼 운전자의 더 각별한 주의와 프로의식이 있었더라면...하고 많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난다.

한번쯤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건 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으로 생긴 나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지게차가 내 주변을 지나갈 때면 그날 일이 떠오르며 지게차 포크의 날이 유독 눈에 띄면서 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자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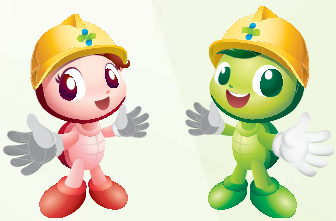
사고 이후 지게차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말도 접했는데 지게차의 외형상 정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포크부분이 거의 지면과 높이 떨어져 있지 않고 도로의 색과 유사하다 보니 지게차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급한 마음에 아래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건너다보면 꽤 긴 지게차 포크부분에 대한 길이계산 없이 차체만 피해 그 앞을 지나려하다가 백발백중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학교에서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일반 승용차나 버스, 택시, 오토바이 말고도 각종 중장비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만 추가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우수상

정범채

조성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통신케이블 전신주 작업, 비오는 날 감전사고 주의

정범채

통신사에서 인터넷기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날 있었던 동료의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0년 전 전화국에서 일할 때 있었던 안전사고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사고소식을 들었다.

통신주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가 정신을 잃고 전신주에 매달려 있다가 119에서 구조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사고가 있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끝에 끝내고 그는 유명을 달리했다.

비오는 날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피해야 하는 일이다. 물기가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을 한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기가 쉽다.

그 선배는 왜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작업에 들어 갔을까? 동료들에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사고소식을 들었다. 통신주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가 정신을 잃고 전신주에 매달려 있다가 119에서 구조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사고가 있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끝에 끝내 고 그는 유명을 달리했다.

물어보니 그날의 작업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통신기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못한 일은 내일로 고스란히 이월되고 회사는 작업물량에 대한 처리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작업을 했을 것이란 추측을 하게 된다.

그날 이후로 비오는 날에 작업을 피한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회사에서 작업처리를 요구해도 비 그치면 몰아서 하겠다고 하고 버틴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동료는 10년 이상을 기사로 일하며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고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 후로도 허리통증은 완치가 안 되어 계속 적인 물리치료와 침술 등을 받고 있었다. 혼자 벌어 살고 있는 처지라 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치료를 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휴일도 없이 일해야 되는 근로조건과 건당 지급되는 성과급이 몸과 마음에 무리를 준 것이다.

작업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안전시설을 잘 갖추고 안전장구를 잘 챙기며, 위험한 상황에선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노동과 불합리한 근무체계로 심신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선 사업주가 이윤에 앞서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2차 손실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조성윤

세상에 올 때 내맘대로 온건 아니지마는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이제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김성환이 부른 〈인생〉이란 곡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사말들 속에는 모두 하나같이 많은 뜻이 내포하고 있다.

이 노래는 사고 이후 내 마음속에서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과 앞으로의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가로 불려지고 있다.

2013년 10월31일 운명의 그날은 40년 넘도록 살아온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인생의 파고를 만나게 되었다.

작년 여름은 유독 태양이 뜨거웠고 무더움에 숨이 목까지 차올라 덥게 느껴지

는 날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장마철을 앞두고 시작된 공사는 비교적 장마를 잘 피해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기운이 느껴지자 일들이 겹치면서 공사기간도 예상외로 길어지게 되었고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거리에 뒹구는 낙엽들로 인해 심적인 압박감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더 해만가고 있었다.

공사막바지에 공사에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었고 마침 외벽마감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되고 그 위에서 타일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해 유의할 것을 강조하는 게 나의 일과의 일부분이었다.

사고 당일(10월31일)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외벽 타일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유리를 달기위해 창호작업 팀들의 공정이 늦어지면서 작업을 관리하던 내가 준비가 덜된 공정단계에서 일손이 없는 관계로 오후작업부터는 직접참여하게 되었다.

용접보조하기 위해 3m가량 사다리 올라 용접하는 반대편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다리가 사시나무 떨 듯 흔들리기 시작 하였다. 그 순간 입에서는 어! 어! 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만약 이 파이프를 내손에서 놓고 사다리에서 뛰어 내린다면 반대편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대로 파이프를 안고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 순간 떨어지면서 왼쪽발이 먼저 땅에 닿았고 발목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만

큼의 강한 통증이 머릿속 깊이까지 전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장에 있던 모든 작업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에서 엠블란스의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가까운 정형외과로 이송 되었다.

> 용접보조하기 위해 3m가량 사다리 올라 용접하는 반대편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다리가 사시나무 떨 듯 흔들리기 시작 하였다. 그 순간 입에서는 어! 어! 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었다. 그대로 파이프를 안고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단순골절로 생각하고 있던 내 생각과는 달리 정밀검사 결과 심각함을 느낀 보호자와 회사대표가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종합병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첫날밤은 통증으로 인해 지금껏 살면서 지내온 밤 들중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세워야만 했다.

추락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발목에는 10kg가 넘는 추를 매달고 꼼짝없이 일주일가량 시간을 보내고서야 조각난 뼈들을 맞추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다.

수술 당일 무통주사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통에 시달렸고 가장 긴 밤을 보내야만 했다.

3개월의 입원과 8개월이 넘는 통원치료로 인해 1년 가까운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아물지 않은 통증으로 인해 내

년 봄에 또 한번 발목 유압술(고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나왔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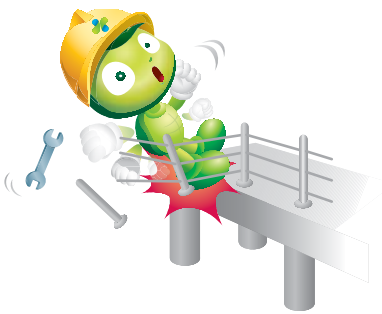
엎질러진 물을 다시는 담을 수 없듯이 사고로 인해 몸에 남은 장애는 치유하기 어렵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다.

"설마 나한테 불행이 오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다.

누군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건 역시 한순간이기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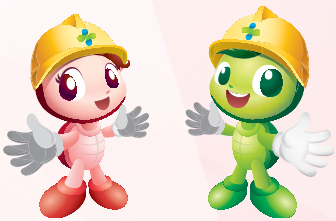


우수상

차상헌

오주석

이성용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종합병원 의료장비 폭발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야

차상헌

벌써 수년전의 일이다. 나는 누구나 이야기하면 다 아는 종합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 예약을 하던지 입원 병실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부탁하곤 한다.

병원이라는 곳이 주로 아픈 환자들이 다니는 곳이어서 안전사고라고하면 침대 또는 이동할때 낙상하는 것이 가장 큰 사고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산소가스통 폭발사고가 났다. 사고 당사자는 다름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였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산소가스통은 의료용으로 환자들의 호흡이 부적절할때 꼭 필요한 의료 장비로 없어서는 안되는 장비이다. 하지만 자신이 운반하는 산소통이 그만 폭발하고 만 것이었다.

안전관리팀에서 폭발사고를 조사해보니 입고 다니는 근무복이 합성섬유여서 이동중에 미세한 정전기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게 산소가 미세하

병원에서 사용하는 산소가스통은 의료용으로 환자들의 호흡이 부적절할 때 꼭 필요한 의료 장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다. 하지만 자신이 운반하는 산소통이 그만 폭발하고 만 것이었다

게 새어 나오는 산소통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로 의료장비 이동을 주업무로 하는 근무자들의 근무복은 내구성을 목적을 둔 합성섬유 대신 피부촉감이 우수하고 정전기 발생이 억제되는 면 소재의 고급재질로 교체되었다.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어서 그나마 그 정도에서 피해가 마무리되어 지금도 다행이라 여겨진다. 생활속에 작은 무관심과 안일한 생각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도 같이 얻게되었다.

작업장에서 정전기 안전사고 화상과 쇼크 주의하세요

오주석

경기도 고양시에는 직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작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여러 중소기업 중에서도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제조하여 재활용품으로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폐기물로 버려진 폐 토너와 폐 카트리지 등을 다시 분해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새로운 토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토너 카트리지 재생 과정 가운데 폐 토너에서 토너가루를 청소하면서 생기는 정전기 발생사고에 의한 쇼크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토너 카트리지 재생업체는 대용량 청소기로 토너 가루를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청소기에서 생기는 정전기로 오른쪽 팔에 작은 화상과 함께 쇼크로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토너 카트리지 재생업체는 대용량 청소기로 토너 가루를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청소기에서 생기는 정전기로 오른쪽 팔에 작은 화상과 함께 쇼크로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청소기에 부착되어 있는 흡입구와 토너 가루가 만났을 때 엄청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나 주의사항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현상을 모르는 사람이 작업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곤 한다.

정전기에 의한 쇼크는 그 정전기가 사람 몸으로 들어 왔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도 하지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잠시 동안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청소기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는 없을까?

정전기 안전사고 예방은 가능하다. 청소기의 흡입구에 전선을 감아 전선을 바닥에 접지하여 흘려보내면 예방 할 수 있다.

지금 우리회사 작업장에서는 전선을 바닥에 접지하여 흘려보내면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용 하고 있다.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날씨가 건조한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전기는 작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작업장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였으면 좋겠다.

롤러기 손가락 끼임사고로 리미트 장치 필요성 실감

이성용

경기북부 인근 화학공장에서 2012년도 3월경 접했던 사고입니다. 작업장에서 롤러 작업을 할려고 내용물을 롤러기에 투입하는 도중 장갑이 롤러기에 빨려 들어가며 손가락이 같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끼임 사고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옆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고 손가락 골절로 그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작업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롤러기에 이상한 물체가 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한 작업자는 순간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손으로 그걸 빼 낼려고 하던 도중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손가락이 같이 빨려들어 갔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항상 안전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비상정지 버튼이 있음으로서 다행히 큰 사고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추후에 또다시 이런 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장치를 비상정지뿐만 아니라 리미트 선을 설치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곳에 무엇이든 작업을 할 시 상시 붓 등을 이용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자들에게 항상 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없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 ○○공장 작업장내 롤러기(3mill) 작업중
작업자의 장갑이 빨려 들어가며 손가락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

위 그림과 같이 롤러부분에 내용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갑이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며 손가락이 같이 빨려 들어감.

재발방재대책(단기적 대책)
리미트 선을 제작하여 설치

재발방재대책(장기적 대책)
상시 작업 시 붓 등을 이용하여 위험을 근절함.

작업 시 붓 등을 이용하여 일정거리를 벌림으로 위험을 근절하며 또한 롤러 작업시만 장갑을 벗어 빨려 들어감을 근절하였다.

장려상

박병균
김경화
최정윤
이종윤
김대갑
차선미
채승하
최창규
홍원주
박수현
김은진
이경민
박성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작업현장에서 2인1조의 중요성

박병균

저는 120억 미만의 작업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현장이 안전 관리자 의무선임이 아니다 보니 현장소장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많다 보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회사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2009년 4월에 일어난 사고를 돌이켜 보면 안전에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조회를 끝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 시간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점심시간 종료 후 작업지시를 하기위해서 다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안보여 찾던 중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였는데 원인인 즉 뇌출혈 이었습니다.

아침조회를 끝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 시간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점심시간 종료 후 작업지시를 하기위해서 다들 모였는데 한사람이 안보여 찾던 중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였는데 원인인 즉 뇌출혈 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찾았더라면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거나 불구가 될뻔 하였습니다.

사고현장 목격 후 직원들의 발 빠른 응급조치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고 몸은 약간의 장애가 생겼으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현장이라도 아침에 TBM활동을 철저히 하고 1개월에 한번 씩 정기 교육과 더불어 본사에 안전팀이 없는 소규모 현장이기에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협회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안전관리 방법 및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정보와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수시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과의 딱딱한 대화보다 유머스러운 대화를 섞어가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 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업시에는 물론 점심시간 쉴 때도 갑작스러운 사고 및 비상시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항상 2인1조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근로자들에게도 2인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소규모 현장에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 됐다고는 하지만 안전보단 작업에 대한 비중이 크다보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차사고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소규모현장에서도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 준공되는 날까지 무재해 현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 듣기 싫어도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듯.

안전최고! 건강제일!

현충일에 전해진 가마의 희생

영암옹기의 안전수칙 잘~ 지켜봅시다.

김경화

고된 업무의 일상 속에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한데 그 날은 이상하게 잠은 오는데 잠이 들지 않고 계속 뒤척인 날이었다.

밤새 고민 있는 사람처럼 뒤척이며 빨리 날이 밝길 바라며 누워있다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이 방을 비추더니 어느새 환해진 방을 보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 시각 AM 5:30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이상한 매캐한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다.

이상하다 싶어 공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옹기공장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고 있었다.

"불이야. 불~. 불났어~. 다들 언능 일어나봐"하고 외치며 반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멘붕이였다.

"불이야. 불~."이 말 외에는 너무 놀라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를 정

도였다.

내 목소리에 놀라 공장 옆 숙소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외국인 직원들과 사장님.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파파박~ 튀기도 하고 붉은 화염이 검붉은 화염으로 수시로 치솟는 화재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119 신고가 1순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화재 현장을 맞닥뜨리자 119 신고는 생각도 나지 않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다.

누군가 빨리 신고해야지 하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불길 속에 여직원들은 어찌할지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데 사장님께서 화재 현장으로 갑자기 뛰어가셨다.

다들 왜 그러시냐고 말렸는데 사장님은 불이 타고 있는 가마 옆 LPG저장 창고에 불이 번지면 가스 폭발로 인해 옹기공장 다 날아가고 사람이 다친다면서 가스 잠그는 게 먼저라고 하셨다.

다들 그 순간 '아차' 싶었다. 불타는 가마 옆에 가스저장실이 있다는 걸….

그러는 사이 외국인 남직원 두 명은 소화기 큰 거 두 개를 들고 공장 비닐하우스 2층으로 올라갔다.

전기도 나간 상태라서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소화기 2개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고 있었다. 다행히 그동안 소화기를 점검하고 비치해둬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도착해서 무섭게 번지던 불길은 진압을 빨리 할 수 있었다.

이 불로 자체진화에 나섰던 사장님이 얼굴 부위와 팔고 다리 쪽에 화상을 입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파파박~ 튀기도 하고 붉은 화염이 검붉은 화염으로 수시로 치솟는 화재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119 신고가 1순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화재 현장을 맞닥뜨리자 119 신고는 생각도 나지 않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다.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인명 피해는 그래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옹기 가마의 과열이거나 가마 전기 합선으로 비닐하우스 지붕, 집기류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겠다고 하셨다.

가마불이 비닐하우스 2층으로 번져 30㎡ 규모의 공장 1동과 옹기가마 등을 태워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이정도 화재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항상 전기와 가스에 노출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설마 우리 공장에서 불이 나겠어? 우린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보니 그 동안 너무 안전에 무신경한건 아니었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남이야 어찌 됐든…"하는 이기주의와 빨리빨리, 대충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눈가림식의 적당주의는 없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요즘 주문량이 많아 옹기그릇을 굽는 가마 6개가 매일 풀가동이 되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려야했는데 너무 바쁘다보니 안전에 소홀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 계기로 인해 우리 영암옹기는 이런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만들었다. 먼저 소화기를 6대 설치했고, 화

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화재를 알려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되지 않게 사전에 조치 및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화재경보장치가 건전지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설치 요청했다.

또한,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만들게 되었다.

안전수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에서 검색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안전수칙을 작업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공장에 부착해 두었다.

영암옹기의 안전수칙 잘~ 지켜봅시다.

1.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2. 소화기사용방법을 숙지한다.
3. 화기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보관하지 않는다.
4. 퇴근 시 전기, 가스시설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5. 숙소를 비울 때는 가스차단, 전원차단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6. 1개의 콘센트에 3~4개 이상 분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보니 공장이 꽤 그럴싸해 보였다.

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와 태국어를 동시에 기재하여 함께 영암옹기를 내 집처럼 잘 지켜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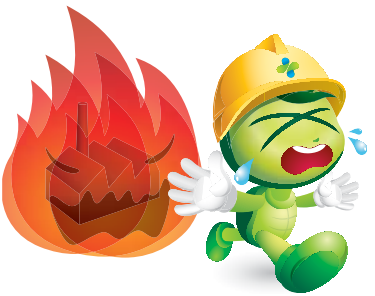
안전은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다.

아직도 6월 6일. 현충일에 찾아온 가마의 불청객으로 인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지만 빨리 복귀가 되어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근무를 할 때마다 보이는 화재의 잔해로 마음도 아프고 시커먼 공장 한 구석으로 때문일까? 공기마저 오염시킨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다시는 이런 화재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암옹기 가족들은 우리의 안전수칙을 점검하면서 가마에서 나오는 영롱한 빛깔의 항아리를 보며 웃고 있다.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영암옹기를 만들 거라는 주인의식과 함께 오늘도 우린 열심히 일을 한다.



안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최정윤

대학교를 다니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평일 오후 조에서 손님들 주문 받는 일, 음식 서빙하는 일, 매장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 저는 서비스 교육을 비롯해 레스토랑에서 진행하는 일정 교육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했습니다.

제가 일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서 특성 상 가족들이 단체로 외식을 하러 많이 왔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아이들을 배려해 키즈 메뉴, 돌잔치 이벤트를 비롯해 어린이 의자, 식기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을 다 마감하고 매장 정리를 하는 도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린이 의자를 옮기다 벌어진 틈에 손이 끼어 찢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가 매우 많이 나 레스토랑에 있는 응급처치 도구로는 치료가 부족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점장님은 매장정리를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맡기고 다친 동료와 함께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저희 팀은 매장정리를 하며 사고가 난 의자는 한쪽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사고가 있고 며칠 뒤 레스토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난번에 동료가 다친 어린이 의자에 아이가 앉았다가 벌어진 틈 사이에 다리가 끼인 것입니다. 며칠 전 매장 정리할 때 그 의자를 버리지 않고 구석에 치워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매장정리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일으킨 참사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레스토랑 서비스와 안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점장님은 레스토랑을 대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고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를 드렸지만, 이 사고로 아이는 육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함께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던 고객들도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가 다친 날, 저를 비롯한 동료들은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위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식에 대한 부재 및 미숙한 대처로 직원에서 일어난 사고가 고객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신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고가 있고 며칠 뒤 레스토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난번에 동료가 다친 어린이 의자에 아이가 앉았다가 벌어진 틈 사이에 다리가 끼인 것입니다. 며칠 전 매장 정리할 때 그 의자를 버리지 않고 구석에 치워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매장정리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일으킨 참사였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자리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적인 교육만 마치고 사업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위험을 마주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숙한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꾸준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모두가 주인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의 안전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작은 사고 방지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살기

이종윤

작년 11월, 우리 아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야트막한 언덕길을 경사도 별로 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내려가다 화를 당한 것이다. 또 매일 오가는 길이라고 한 잔한 상태로 방심하며 자전거를 탔으니 사고의 원인은 아빠에게 있다. 경사는 깊지 않아도 경사는 경사였다. 더구나 취기로 인해 브레이크를 제 때 못 잡은 결과 자전거는 뒤집어졌고, 급정거로 인해 자전거 손잡이가 오른 쪽 복부에 강하게 들이받혔다.

먼저 119에 신고를 했다. 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나가던 분께서 119에 먼저 신고해주셔서 구급차는 비교적 빨리 도착했다. 하지만 부상정도가 심해서인지 구급차는 대학병원까지 가야했다. 하지만 때는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과 더불어 휴일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구급차는 급박함을 알리듯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도로에 퍼트렸지만 야속한 자동차들은 그들의 길만을 갈 뿐이었다.

당시 아빠의 상태는 복부 외상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동시 출혈이 일어난 꽤 심각한 상태였다. 선진국을 내다본다는 우리나라가 구급차를 위한 양보가 모자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내 병원에 도착했지만 치료 중 상태는 악화됐고 패혈증까지 생겨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갔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 겨우 자전거 하나로 환자 본인도 가족들 모두가 힘든 상황까지 왔으니. 하지만 아빠는 기적적으로 차도를 보이게 됐고 제정신으로 일어났다.

어처구니없이 당한 사고였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나, 방심한 대가로 얻은 외상과 내부 출혈이 정밀진단을 위한 CT 촬영 결과, 신장에서 초기 종양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는 종양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친 후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더불어 건강을 위해서 아빠는 금주를 해야 했기에 이전에 아빠의 음주로 인해 겪었던 가족들의 고통을 더는 안 보니 좋은 점도 생겼다.

스마트폰.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존재. 일어나 세면과 면도를 할 때 흥얼거리게 하는 존재. 언제나 붐비는 분당선과 2호선 지하철 안에서도 환승해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내가 주시하는 존재. 학교, 길, 집 어디든지 계속 신경 쓰이는 존재가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나만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학교에 있는 학생도 직장에 있는 직장인도, 버스를 타는 사람도 지하철을 타는 사람도 이 사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다. 현대의 이기(利器)를 집약적으로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폰이지만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위험사례로 남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걷는 것이다. 사람이 평소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각은 120° 정도인데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보이는 시야각은 순식간에 20° 이내로 좁아진다. 당연히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데 지장 받을 수밖

매일 오가는 길이라고 한 잔 한 상태로 방심하며 자전거를 탔으니 사고의 원인은 아빠에게 있다. 경사는 깊지 않아도 경사는 경사였다. 더구나 취기로 인해 브레이크를 제 때 못 잡은 결과 자전거는 뒤집어졌고, 급정거로 인해 자전거 손잡이가 오른 쪽 복부에 강하게 들이받혔다.

에 없다.

내가 다니는 학교 도서관은 내부 건물이 원목 느낌이 나는 실내구조로 계단 끝선도 나무이기에 계단 끝이라는 인지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걷다가 받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 상황을 목격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빨리 이동했지만 그 여학생은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발목에 깁스를 두른 채 새 학기를 시작했다.

다음 사례는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다. 역 안을 이동할 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다. 특히 스마트폰에 집중한 나머지 걷는 것도 잊고 잠깐 멈추는 그 잠깐의 행동이 뒤에 물밀 듯 내려오는 혹은 올라가는 출근, 등교인들의 러쉬에 넘어질 위험과 마음 급한 뒷사람들에게 짜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행위다. 물론 스마트폰의 효용 중 하나는 언제어디서나 이동 중의 기기 사용이라 점이지만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한다. 가뜩이나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다. 심지어 차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걷는다. 눈 먼 차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대응할 여지가 그만큼 사라진다.

이에 미국 아이다호주(州), 유타주, 뉴저지주 등에선 철도 건널목 근처를 걷거

나 도로를 횡단할 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부주의한 보행(Distracted Walking)'으로 규정,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부주의한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4000여명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숨지고 6만 명이 다친다고 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내가 세상을 지나갈 때도 세상이 나를 지나갈 때도 지금의 세상은 빠르기만 하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한다. 현재 보이는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매일 봐왔다고 해서 오늘 봤던 것이 내일과 같을 수 없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그렇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여태 안 그랬으니깐 앞으로도 안 그러겠지', '지금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 자체가 안전의 파괴, 불안전의 시작이다. 기술 발달로 세상의 편리가 조그만 직사각형에 수없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을 온전히 품는 것은 우리의 눈이다. 그 눈을 언제까지 조그만 직사각형에 가둘 것인가. 스마트폰 물리적 위험도 크지만 내면적 인간 본연의 사고와 감성까지 속박한다. 안전이라는 것은 온전히 평안하다는 상태. 즉 건강한 상태의 지속을 말한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동 중 사람이 붐비는 곳이나 공공시설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한 나머지 놓치는 최상위의 가치가 안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자. 안전의 삶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부터 안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한다.

반장님, 제가 조금 다쳤어요.

김대갑

작년 여름, 태양이 붉은 혀를 내밀며 사방을 태울 듯이 무덥던 칠월의 어느 날이었다. 지금도 그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하다. 작업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또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작은 부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후덥지근하면서 끈끈한 날이었다. 다행히 그날은 지하철 역사 안이라 조금은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세 명의 근로자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매표소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철거반장으로서 세 명의 근로자와 함께 직접 망치를 들고 일하는 처지였다. 먼저 우리는 매표소 주변에 비닐을 단단히 쳤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안전화와 안전모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일꾼 중에 김씨의 발이 작아서 갖고

온 안전화가 그에게는 조금 컸다. 김씨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안전화를 신었다.

어쨌든 우리는 오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매표소의 강화유리와 간판을 다 철거한 후에 점심을 먹었다. 어느덧 오후 1시, 초콜릿처럼 달콤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작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작업은 가장 어려운 블록 담 철거였다. 철거 경험이 많은 김씨에게 블록을 깨는 장비인 해머 드릴을 잡으라고 했다. 사십대 초반의 김씨는 네모난 얼굴에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이었다. 다른 일꾼들은 나이가 제법 들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블록 쪼가리를 역사 밖으로 옮기는 일을 하기로 했다. 두두둥 하면서 해머 드릴이 작동하고 블록 담이 부서져 나갔다. 두 시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니 블록 담의 삼분지 이 정도가 해체되었다. 어느덧 오후 참 시간이라 나는 참을 사러 나갔다.

우유와 빵을 사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니 블록 담은 거의 해체된 상태였다. 나는 오늘 작업이 무사히 끝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단단한 부분인 바닥 콘크리트였다.

우리는 참을 먹으며 땀을 식혔다. 그런데 참을 다 먹은 김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반장님, 제가 조금 다쳤어요.' '뭐, 다쳤다고? 어디?'

나는 놀란 표정으로 김씨를 쳐다보았다.

'발가락을 조금 찍혔어요.' '뭐, 발가락? 아니 어쩌다가? 안전화 신었잖아?'

나는 급히 그의 안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안전화의 발가락 부분에는 강철로 된 판이 있어서, 웬만해선 발가락이 잘 다치지 않는데 뭔가 이상했다.

'드릴이 작동을 안 하기에 제가 드릴 주둥이를 바닥에 대고 톡톡 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빠방하면서 튀어 오르더니 새끼발가락을 찍었어요.'

'뭐라고? 허허. 이거 참. 빨리 안전화 좀 벗어보소.'

그러자 김씨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가 발을 기계 쪽으로 너무 가까이 해서 생긴 일이라며 별 거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보채자 김씨는 마지못해 안전화를 벗었다. 새끼발가락 쪽에 약간 피가 배어 나온 것이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다.

'안전화가 커서 발가락 쪽이 헐렁했는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튀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아이고, 됐어요. 병원은 무슨? 약국에 가서 반창고 좀 바르면 되지.'

'그래도 될까? 허참, 퇴근 시간도 다 돼서 좀 애매하네.'

그때 시계를 보니 오후 세시였다. 나는 김씨에게 일할 수 있겠냐고 몇 번 물어보았다. 김씨는 충분히 일 할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했다. 김씨는 다시 무거운 드릴을 들고 콘크리트를 깨기 시작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는 김씨를 보니 나는 조금 안심되었다.

하여간 우리는 서둘러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씨가 마지막 피치를 올려 바닥 콘크리트를 다 깨주었다. 나는 김씨에게 쉬고 있으라 했다. 김씨가 쉬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은 죽을힘을 다해 쓰레기 포대를 지상으로 옮겼다.

오후가 되니 비가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조금씩 해가 보이기도 했다. 멀리 한적한 아스팔트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가끔 상쾌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김씨가 역사 밖으로 나와 합류하겠다고 하자 나는 일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김씨는 기어코 포대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를 1톤 차에 다 옮겼고, 작업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시간도 조금 오버됐으니까 일당은 조금 더 줄게요.'

나는 일꾼들에게 만원씩을 더 얹어 주었다. 피곤에 절은 일꾼들의 얼굴에 환

한 웃음꽃이 하나 둘 피어올랐다. 땀을 흘려 번 소중한 돈으로 그들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쌀과 생활용품을 사 줄 것이다.

'자, 다들 잘 가시고 김씨는 나랑 빨리 약국에 갑시다.'

나는 김씨에게 트럭에 올라타라고 했다. 어느새 서쪽 하늘에 붉은 석양빛이 보였고, 하늘에는 옥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김씨를 태운 후에 근처의 약국으로 들어갔다.

나는 악사에게 붕대와 반창고 등을 주문했다.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김씨는 양말을 벗었다. 양말을 벗으니 새끼발가락의 가운데 부분이 부풀어 있었고, 피멍이 약간 들어 있었다. 많이 안 다쳤군. 나는 속으로 안도하며 소독약을 그의 새끼발가락에 부어주었다. 그런데 김씨가 표정을 심하게 일그러뜨리면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왜 그래? 김씨.' '으으. 긴장이 풀렸는지 너무 아파요. 힘도 없고요.'

차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김씨의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했다.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서둘러 김씨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다. 김씨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몹시 불안했다.

나는 차를 몰고 무작정 제일 큰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쓸 만한 병원이 눈에

'발가락을 조금 찍혔어요.'
'뭐, 발가락? 아니 어쩌다가? 안전화 신었잖아?'
나는 급히 그의 안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안전화의 발가락 부분에는 강철로 된 판이 있어서, 웬만해선 발가락이 잘 다치지 않는데 뭔가 이상했다.
'드릴이 작동을 안 하기에 제가 드릴 주둥이를 바닥에 대고 톡톡 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빠방하면서 튀어오르더니 새끼발가락을 찍었어요.'

띄지 않았다. 눈을 감은 김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병원이 왜 이리 안 보여? 투덜거리며 열심히 병원을 찾던 나는 마침내 위생병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새 주변이 어두컴컴하게 변해갔다.

'어허, 이거 뼈가 부러졌네요.'

응급실의 젊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기브스를 하고 입원해야 합니다. 완쾌되려면 한 달은 걸려요. 다쳤을 때 바로 와야 했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뼈가 더 부서졌어요. 일주일이면 되는데 병을 더 키워서 오셨네요.'

김씨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가슴 속에는 쿵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걸 어쩌나?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한 달이라니?

'한 달은 무슨 한 달이에요? 그냥 나 집에 갈래요. 빨리 치료나 해줘요.'

'아, 거참, 의사 선생님이 기브스 해야 한다는데 뭘 집에 가?'

나는 김씨를 야단치며 의사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일을 시킨 회사에 나는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산재 처리할 테니 의사 소견서나 잘 받아 오라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잠시 후, 다시 응급실로 가니 김씨의 왼 발은 두터운 기브스로 둘러 싸여 있었다.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조금의 실수가 저렇게 큰 부상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씨는 무척 송구스런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반장님, 여기는 집과 멀어서 불편해요. 집 근처 병원에 갈게요.'

'허허, 거참. 고집도. 그럼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내일 집 근처 병원에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산재 처리해야지 뭐.'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하네요. 산재 처리한다고요? 다 제 잘못인데.'

'운이 없는 걸로 합시다. 내 불찰도 크지 뭐.'

김씨는 집으로 가면서도 내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참 순박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표정이 변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도 몇 번을 했을 것이다.

그의 집은 허름한 산동네에 있었다.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는 극구 사양하며 집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다. 할 수 없이 나는 그의 집 입구에 내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눈을 확 떴는데, 받아 보니 김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다.

'반장님, 지금 구급차로 실려 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 너무 아파요.'

나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가 실려 갔다는 병원으로 가보니 김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나를 맞이했다.

'미안하네요. 반장님. 바쁘실 텐데.'

김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다. 얼굴이 온통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 그 병원에 하루만 입원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젯밤에 응급 처치는 잘 됐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하룻밤만 안정을 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발가락뼈가 산산조각 났어요. 다친 이후로 발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술도 좀 드신 것 같고...'

하여간, 미련한 사람. 어젯밤에 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게다가 술 까지 먹다니. 통증이 오니까 억지로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나는 원무과로 가서 산재수속을 밟은 후에, 다시 김씨의 병실로 갔다. 그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가 자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들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내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었다. 안전화를 준비할 때 치수가 다양한 것을 준비해야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치수를 갖고 온 것이 큰 실수였다. 사고는 정말 순간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작업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해머 드릴의 작동여부를 철저히 체크해야 했고, 장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현장에서 사고의 태반은 장비 사용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또한 처음 김씨가 다쳤다고 말했을 때,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머뭇거린 것이 굉장한 실수였다. 그날 하루 만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인데,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주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수한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김씨 말만 믿고 약국에 데려가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김씨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김씨의 말을 안일하게 믿고 일을 계속 시킨 것이었다. 보통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다치면 일단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못 받을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다 보니 다친 곳을 작게 말하고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나 역시, 김씨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순진하게 믿어 버렸고, 결국 김씨가 일을 계속하면서 큰 부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다음 실수는 위생병원에 갔을 때였다. 집에 그냥 가겠다고 한 것을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김씨를 차분히 설득하여 오늘 밤 만이라도 위생병원에 있으라고 강조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 그날 김씨가 위생병원에 하루 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잠든 김씨의 얼굴을 우두커니 내려다보았다. 노동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그의 옆에 깨죽과 음료수 한 박스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꼼꼼히 적은 수첩을 몇 번이나 내려다보면서 병원 문을 나섰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김씨는 산재치료를 받을 것이고, 요양급여도 받겠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부상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 순간의 방심이 오랜 시간 동안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우연히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것은 없다. 작업 준비를 하다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우연한 안전 사고의 시작인 것이다.

나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고 투명한 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앞으로 김씨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저 별빛처럼 빛나면 그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어떻게 안전운전 합니까

차선미

5년 이상 버스를 운전 하면서 사고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안전사고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한번쯤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것이에요. 저희 신랑 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의 안전사고가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속이쓰리고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데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 시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손님도 거의 없었고 손님들 앞문 승차하시고 뒷문 손님들 하차시키고 여느 때처럼 버스 뒷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발하나가 올라오는 것이 보여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밀러로 보니 아주머니가 서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닫으려고 움직이는데 발을 또 올리는 겁니다.

다시 열어 주었습니다. 아니 열어 준 것이 아니라 뒷문 고무파킹에 센서가 있어서 살짝 닿기만 해도 바로 열립니다. 다시 머뭇거리더니만 올라타는 것이에요. 뒷문으로 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정류장 지나서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중에 그 여자분이 내쪽으로 와서 너무 아프답니다.

내가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팔이 뼈속까지 아프답니다. 나로선 황당했죠. 일단은 차고지가 가까워 회사로 같이 왔지요. 그 여자를 회사 책임자에게 인계해주고 한 바퀴 돌고 오니 실무자가 전화로 사과하면 될 것 같다 하여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열어 주었습니다. 아니 열어 준 것이 아니라 뒷문 고무파킹에 센서가 있어서 살짝 닿기만 해도 바로 열립니다. 다시 머뭇거리더니만 올라타는 것이에요. 뒷문으로 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정류장 지나서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중에 그 여자분이 내쪽으로 와서 너무 아프답니다.

자기가 뒷문으로 타는 건 인정하지만 전에도 계속 뒷문으로 탔다고 합니다.

다음날 입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병원에 갔는데 귀가 울리고 이명이 들려서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서 꾸미고 벌금 물고 마땅한 법규가 없는지 법규 책을 열심히 보더니 안전운전 불이행 끊어주었습니다.

버스의 뒷문센서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있습니다. 반쯤 닫힌 상태에서도 손. 발 등 같다만 데도 바로 열립니다. 문은 천천히 열리고 닫힙니다. 기사마음대로 세게 닫고 열고 할 수 없는데 안전수칙은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하철 기관사 안전사고 대비 습관부터 고쳐야

채승하

지하철 기관사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항상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다.

지금은 스크린도어가 많이 생겨 자살 사건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 있지 않은 역사가 많아 가끔 철로 투신자살 뉴스를 접할 때면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물론 철로에 투신하는 사고를 경험한 것을 말한다.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다.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신경정신과를 습관처럼 통원하고 있다.

우선 새로 생기는 지하철 역이나 사용자가 다른역에 비해 작은 역에도 스크린도어가 빨리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지하철 기관사는 업무 특성상 시간에 대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기관사가 교대해서 운전을 하면 5호선 같은 경우 3시간 후 교대를 하게된다 교대가 안 될 경우가 참 난감하다. 교대자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다 열차지연 관계로 교대역에서 계속 정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 생기는 지하철 역이나 사용자가 다른역에 비해 작은 역에도 스크린도어가 빨리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이나 생명 존중에 대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드물지만 이럴 경우 기관사는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게된다 교대를 못해준 기관사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교대를 못해주는 경우는 교대 시간표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잘못 본 경우는 사무실에서 부터 뛰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안전사고 가 발생된다.

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하다고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발목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사전에 교대시간을 인지하고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일 것이다.

거미줄 전선 속에 잡혀있던 위험

최창규

나는 규모가 10명 정도 되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2년간 근무했었다. 그 곳은 도시와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단독주택 가정집에서 컴퓨터 10여대와 노트북 10여대 및 기타장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였다. 기업의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아 규모에 비해 전기료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항상 회사측면에서는 전기 사용량에 대해 고민을 했다.

하지만, 사용량 측정을 하던 도중 전기 관리자에게 전화를 받고 기업용 전기 단가로 조정이 된 후, 전기 비용은 기업운영비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고 자연히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많은 전기사용에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몇 개의 문어발식 콘센트며 과도한 전기사용, 심지어 난방기구들도 모두 전기로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가 일한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합선, 누전 때문에 사건이 터졌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연결된 전선에서 불이 나고 , 그 전선에 연결된 장비 부품으로 전기 누전이 되어서 장비가 고장나게 되었다.

최종납품확인을 하던 과정에 장비가 손상됨에 따라서 거래처에 단순부주의에 의한 합선사고라고 설명하였지만, 사고는 소프트웨어 관리기능 문제로 이어졌고, 제품신뢰도에 타격을 주어 납품이 취소되었다.

사람이 죽거나, 집 전체에 화재가 나진 않았지만 그 해의 5개월 프로젝트를 날려먹는 손실을 끼치게 되었고 이는 작은 규모의 기업에선 아주 큰 타격이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간단하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신경쓰지 않게 되면서 과도한 전기사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가정집에선 전기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사용도 신경쓰며 사용하고, 콘센트도 사용하지 않을 땐 빼놓는 가정도 많다. 내가 일하던 기업도 처음 몇 달간은 전기세가 60만원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전력 사용량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기업용 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에어컨은 물론, 모든 난방기구들을 전기로 대체했다. 하나의 콘센트에 멀티탭을 여러개 연결하여 전력사용이 많은 난방기구, 노트북, 텔레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전기사용에 부주의해지다 보니 콘센트를 꽂아 놓고 관리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며 전선을 발로 밀어놓고, 전선이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꼬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선은 어느새 부터인가 낡고 피복이 벗겨지게 되었고, 피복이 노화되면서 전선끼리 접촉되어 과전류가 흐르는 합선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합선현상과 더불어 멀티탭의 과도한 사용은 누전현상으로도 이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사고로 터진 것이다.

전선은 어느새 부터인가 낡고 피복이 벗겨지게 되었고, 피복이 노화되면서 전선끼리 접촉되어 과전류가 흐르는 합선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합선 현상과 더불어 멀티탭의 과도한 사용은 누전현상으로도 이어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사고로 터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기업의 위치다. 내가 일했던 곳은 덕양구 항공대학교 근처 창고가 밀집된 곳의 단독주택이었다. 이곳은 여러 창고들이 많이 밀집되어있고 간간히 단독주택형식의 소규모 기업이 많은 곳이었다.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건물이 있지도 않았고, 특정사람만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작은 편에 속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가스 점검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또한 대부분이 오후부터 밤까지 일하는 시스템이라 오전에 오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위의 원인들로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내가 겪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 문제이다.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관리 또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엔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 디지털미디어시티 같은 벤처기업 밀집구역은 한 건물에 수십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각 가정에서 쇼핑몰 같은 사업을 하는 인구도 증가할 대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경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문화를 장려하느라고 소규모 기업에도 전기비 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관

리도 이루어 져야 한다. 보안팀, 경비팀을 둘만큼 규모가 큰 회사들은 전기사용량, 각종안전규칙들을 자체적으로 지정해놓고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을 받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예산도 빠듯하기 때문에 전기 및 기타 안전 문제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좀 더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방문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때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제안한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법을 알고 또 이를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기업용 전기를 공급하기 전, 매달 불시의 방문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각 지역별 방문검사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또한 방문 검사시 벽 및 수도꼭지 등으로의 누전여부, 전선들의 합선여부, 과도한 멀티탭 사용 여부 등을 조사를 통해 모든 검사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기업들에게 기업용 전기를 제공하기에 앞서, 모바일 용 안전 필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우는 순간 기업용 전기 단가가 일반단가로 조정되게 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 인해 기업용 전기를 제공받는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 받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 또한 모든 기업들에게 공개되어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정보를 팝업광고처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팝업광고로 뜨는 것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의 알림기능은 무음모드로 전환될 수 없게 설정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이 뜰 때 마다 소리를 통해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알람은 소리나 진동과 함께 스마트폰 상단의 알림표시줄로 알림이 뜨게되며, 매달 전기료가 나올 때 마다 알림을 동반하게 된다.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알림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같은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람은 문어발식콘센트-전기누전 / 합선시 장비손상위험 / 피복벗겨짐-합선 주의 와 같은 알람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근로자들,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 기업용 전기를 제공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비용절감 측면으로 인해서 부주의한 측면이 발생되게 된다. 이 부주의한 측면 때문에 전기합선, 누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정기적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기적 관리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아이디어로 기업환경과 사회는 더욱 윤택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장비 작업시 방심이 부른 안전사고

홍원주

나에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 아니다. 무릎과 발 사이 뼈가 구부러져 있다. 아무리 수술을 여러 차례 하여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영광의 상처로 알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방심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은 97년 5월 초였다. 서울에서 살다가 양평의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모내기를 위하여 논을 갈고 써레질을 하는 시기였다. 나는 중장비 불도져를 운전하는 중장비 기사였다.

경운기나 트렉타로 고르지 못하는 습지대나 돌이 박힌 논은 작업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하는 시기였다. 전화 요청이 오면 운반차로 싣고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남양주 조안면 부근에서 작업요청이 왔다. 운반차를 수배하여 싣고서 남양주

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천둥소리는 하늘을 가르는 듯 요란 한데 육중한 불도쟈는 옆으로 쓸어져 굉음을 내품고 있었다. 운반차는 옆으로 넘어가 있고 그 옆에 내 오른쪽 다리가 눌리어 있었다.

로 달렸다. 부슬비가 내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세차게 내렸다.

어차피 물이 있는 논을 고르는 것이니 비가와도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현장으로 달렸다. 작업할 논 옆에 하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운반차 기사가 하차 장소가 불안전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가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하차를 하자고 하였다. “ 내 장비 운전 경력이 30년이요 그냥 내립시다 ” “ 조심 하셔요 고임돌을 잘 놓고 내립시다”

운반차 기사의 충고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어서 빨리 하차를 하여 논을 고르고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였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는데 일거리가 있을 때 많은 작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었다. 불도쟈의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는 순간 장비가 미끄러져 내리더니 급기야 옆으로 넘어가버렸다. 순간 나는 운전석에서 떨어져 운반차의 적재함 밑에 오른쪽 다리가 눌려 버리고 말았다.

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천둥소리는 하늘을 가르는 듯 요란 한데 육중한 불도쟈는 옆으로 쓸어져 굉음을 내품고 있었다. 운반차는 옆으로 넘어가 있고 그 옆에 내 오른쪽 다리가 눌리어 있었다.

내 정신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기사님 먼저 장비 엔진을 정지 시키고 크레인을 불러요 나를 구해 주셔~~~~요!”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내 몸은 온통 하얀 붕대로 감기어 있었다. 아내가 보였다. “장비와 운반차는 어찌 되었오?” “지금 그것이 중요해요 다행히 오른쪽 다리뼈만 부러졌데요 밑에 흙이 질어서 이정도지 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났대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새벽마다 나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던 아내였다.

사고의 후유증은 대단하였다. 크레인 출동비, 운반차 수리비 , 장비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일일이 사람을 서서 해결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답답하였다.

근 두 달을 누워 있다 보니 세월은 저만큼 가버렸고 일할 시기도 놓쳐 버렸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가 버렸다는 교통사고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조금만 신중하게 움직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비조차 내리는데 경사진 도로에서 하차를 감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30년간 조그만 사고도 당하지 않았는데 경험과 기술만 믿고 서둔까닭이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몸에 묶고 사용 할수 없는 법인데 지극히 방심한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잠시 잊은 것이다.

나는 그 동안 숱한 중장비 사고를 목격 하였다.

80년 중동붐이 일었을 때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였다.

모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지게차 운전 기사가 헬멧을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머리가 철재 기둥에 맞아 사고를 당하고 장비 끼리 와이어 로프로 끌다가 줄이 끊어지며 사람을 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동료 근로자들의 장례식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안전수칙을 강조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가면 금 새 망각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 하였다.

불도저 운전 경력 30년이면 눈을 감아도 조작이 가능하다. 아무리 넓은 운동장이나 논바닥이라도 기울지 않게 수평을 잡는다. 골프장에 라운드 까지 호미로 밭이랑을 고르듯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사고는 뜻하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려했고 조급증이 안전을 도외시 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 날 사고 이후 나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습관이 생활화 되었다. 지금도 가끔 중장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조급증과 방심이 원인이다. 모두가 사고를 체험으로 느끼면 그 때는 이미 늦다. 나처럼 몸에 영광의⁉의 상처가 남거나 더한 불행으로 가족과 사회에 부담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가 작업에 임할때는 서두르거나 방심하지 말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밝은 가정과 사회를 영위해야 할 것이라 믿으며 글을 맺는다.

건물철거 현장
대퇴부 골절사고에서 재활까지

박수현

2011년 4월의 어느 봄날. 간단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김에 보내려 철판과 나무가 결합된 물건을 분리해서 버리려고 발로 밟아 해체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옆으로 쓰러졌는데 골반뼈가 어긋난 듯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업무가 끝난 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당직의사는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겨 치료시기가 늦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침 맞으면 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걷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는 듯 해 다시금 병원을 찾아 CT 와 MRI를 찍으니 대퇴부골절이니 빨리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면서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했었는데 후회가 물밀

건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김에 보내려 철판과 나무가 결합된 물건을 분리해서 버리려고 발로 밟아 해체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옆으로 쓰러졌는데 골반뼈가 어긋난 듯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듯 밀려온다. 무혈성 괴사가 될지 모르니 2년 동안 예후도 지속 관찰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진단에 한 번 더 절망하고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지원이나 도움이 있을 듯 하더니 한 번 다녀가고 금방 퇴원하려니 하고 소식이 없다.

2년간의 경과를 보려면 금전적, 시간적으로 쫓기게 되니 산재생각이 났다. 같은 병실에도 산재환자가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와서 상담도 친절히 해 주고 그의 회사에서도 30%의 지원으로 100%에 가깝게 수령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업무들이 부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근로자 환우들에게 매우 큰 힘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산재신청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다. 신청과정, 그리고 향후 복직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것이다.

일을 하다가 일부러 다칠 바보도 없거니와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한 만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되었지만 신청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생활이 진행되었고 종결되는 시점까지 부지런히 재활훈련을 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의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평소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항상 안전에 대한 인식과 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생활습관화 되어 있어야 사고방지는 물론 개

인의 행복과 비용, 기업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에너지의 낭비가 경감되니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된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 작업장 곳곳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고 홍보물들을 통한 교육 등을 하고 있으나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녹음되거나 음성파일과 센서를 결합시켜 작업장 곳곳에서 자동으로 안내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멘트가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하다.

혹시라도 제작비용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서 꺼린다면 공단차원에서 IT제작업체를 섭외해 산재가입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세팅하는 방법으로라도 개선과 함께 산재로 지출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지 않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본다.

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복지공단의 삼박자가 건강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늘도 힘쓰는 근로복지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은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사이렌이 울리자 당황스러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지만, 이 곳 사람들은 그 전에도 으레 있던 일이라 그런지 다소 귀찮은 듯 엉기적거리며 자리에 일어나더군요. 삼삼오오 무리 지어 수다를 떠는 사람들,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 시간을 잠시 휴식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사무실에는 안전에 대한 준비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분했습니다.

총 17층인 건물에서 근무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오히려 업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이런 식의 불평을 듣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

럼 연기가 나면서, 숨쉬기 조금 힘들 정도의 냄새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대비훈련을 진행하던 한 요원의 다급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모두 신속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피식거리며 밖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여전히 그 말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아직도 어리둥절하면서도 '실제로 화재가 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보니, 3층 창가에 있던 진행요원이 작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곧이어 준비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제 뒤에 있던 한 직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구경할만한 불씨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하며 조롱 섞인 핀잔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작은 횃불만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작은 존재였나 봅니다.

횃불은 순식간에 진압되고 이어서 1층 로비에서는 인공호흡 및 긴급 상황 대처에 관한 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내려올 때처럼 무관심으로 그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내려왔는데, 강습에 참여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을 보면 짐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친 재난대비훈련이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 시간이 어떤 경험으로,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을까요?

물론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나 지진과 같은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비상계단을 내려가거나 불을 보며 농담조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지금, 연습만큼 중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연기가 나면서, 숨쉬기 조금 힘들 정도의 냄새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대비훈련을 진행하던 한 요원의 다급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모두 신속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그에 대한 대비는 유명무실 견고하게 준비되어 있고, 유사한 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임한다고 합니다.

안전불감증은 현 사회의 풍토를 반영한 우리들의 염증과도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는 안전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기에, 사회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사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안전에 무딘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사회가 안전을 강조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업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닌, 안전을 위한 준비가 먼저임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대비훈련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대부분의 국민에게 일러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개인이 변하고, 안전제일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외양간 고치고 소 지키기

전기합선 화재사고 소화기 비치는 필수

이경민

최근 연합뉴스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1천24시간은 일해야 한다.' 고 전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학 등록금 마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방 값,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쟁터' 로 내몰린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무 환경은 어떨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PC방, 호프집, 카페 등이 있다. 건물 내 흡연이 가능했을 때, PC방에는 칸막이도 없이 흡연실을 구분해 비흡연자들의 고충이 컸다. 또 호프집에서는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날카로운 식기에 찔리는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이 되었다.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 총 3 차례의 카페 아르바이트 경

어느 날은 벽에 있는 스위치가 터져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당시 사장님은 벽에 '조심해야한다' 정도의 주의만 주었을 뿐 그대로 방치하였다. 소화기 역시 구비해놓지 않아 옆 가게에서 빌려와 불을 끄고 난 뒤 일단락되었다.

험이 있는데, 그 중 경험했던 안전사고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청파동 소재 개인 카페에서 주중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식음료나 실내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기준이 있었지만, 내가 근무했던 가게에는 없었다. 과일이나 빵의 경우 알맞은 시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아 음식이 상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고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급하게 폐기하는 식이었다.

어느 날은 벽에 있는 스위치가 터져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당시 사장님은 벽에 '조심해야한다' 정도의 주의만 주었을 뿐 그대로 방치하였다. 소화기 역시 구비해놓지 않아 옆 가게에서 빌려와 불을 끄고 난 뒤 일단락되었다. 사고 이후 카페에는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차적으로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은 안 일어나겠지.' 와 같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더 큰 사고를 초래한다. 제2롯데월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위험요소가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은 기우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인식이 고조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쉽게 지나치고 있다. 소를 잃기 전에 울타리는 튼튼한지, 걸쇠는 잘 걸려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캐러멜 향기

박성윤

잠시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알람소리가 울린다. 잠을 푹 잤는지 알 수 가 없다. 몸은 여전히 무겁다. 대충 머리를 감고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나와 보니 차가운 공기가 건조한 피부를 찌르고 덜 마른 머리를 만진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니 점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의 모습은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간혹 눈이 초롱초롱하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곤한 표정이 역력하다. 단지 그들과 나의 복장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충 차려입은 점퍼에 면바지는 겨울의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역에서 내려 공장단지로 들어가는 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진다.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골목길을 지나 작은 공장에 들어간다. 출근체크기에 내

출근부를 넣는다. '드르륵' 들어갔다가 나온 출근부의 채워진 부분과 비워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선 한숨을 쉰다. 공장에 들어가니 비가 내려서인지 자욱한 먼지보다는 무겁기만 한 공기가 나를 반긴다. 공장의 로고가 찍힌 청색 점퍼와 마스크를 하고나니 바람도 불지 않는데 더 으슬으슬하다. 아주머니들은 이미 등유 난로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인사를 하고 같이 난로를 쬐면서 오늘의 할당량이 얼마큼인지 묻는다.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아는지 몇 부를 찍어내야 한다고 말을 해준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공장 내 풍경도 많이 익숙해졌다. 수많은 책가지들, 어지럽게 물품이 쌓여져 있는 수납장과 하얀 페트병에 든 벤젠, 공업용 칼과 자, 여러 가지의 접착제와 포대, 엄청난 양의 종이가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몇 년의 시간동안 고생한 보람을 마침표를 찍는 순간인 졸업식. 그 졸업식에 빠져서는 안 될 졸업앨범을 만들고 있다. 졸업생들에겐 한 장씩 넘겨가며 즐거워하겠지만, 나에겐 한낱 종이뭉텅이에 불과하다.

곧이어 공장장이 오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근 며칠간 계속된 작업이다. 오늘도 물량을 맞춰야한다는 소릴 듣고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을 짐작하게 된다.

앨범은 생각보다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처음으로 앨범속지를 한 장씩 인쇄를 한다. 인쇄된 종이들을 모아 한쪽면만 재단을 한다. 재단한 면에 접착제를 발라 하나의 속지로 만든다. 나머지 면을 재단하고 앨범커버를 붙여주면 앨범이 완성된다. 간단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속지와 앨범커버가 붙여서 나온 것을 받는 일과 재단한 종이들을 정리하는 일이 나의 주된 업무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 가장 곤욕스러운 일은 속지를 만드는 일이다. 속지를 만드는 작업은 한쪽 면만 깔끔하게 재단된 종이들을 엇갈리게 쌓아 벽처럼 만든 후 재단된 면에 얇게 접착제를 발라 여러 장

의 종이를 한 묶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졸업식에 가까워진 일정에 따라 맞춰야할 양이 많아져서 나도 속지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정리된 종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종이 벽을 만드니 1m 50cm가량의 벽이 세 줄 생겼다. 절로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 후 접착제가 말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동그란 통에 접착제를 붓고 붓을 챙긴다. 종이에 접착제를 바르기 시작하자 휘발성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통 안에 든 접착제가 바닥났다. 네모난 모양의 철제 접착제통을 들어 작은 통으로 접착제를 붓는데, 샛노랗고 투명한 물엿같이 생긴 접착제가 흘러나온다. 달콤한 엿가락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통에서 처음 꺼낸 접착제를 종이에 바르게 되면 연한 노란빛을 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접착제가 응고가 되면서 접착제는 짙은 노란색의 캐러멜 색깔을 띠고 서로 뭉쳐져 바르기가 쉽지 않게 된다. 뭉쳐진 접착제를 바르게 되면 알갱이가 진 모습으로 종이에 발리게 된다. 접착제를 따로 담았을 때 빨리 바르게 되면 상관없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시간은 더 걸리게 된다. 나는 평소에도 코를 톡 쏘는 특유의 접착제냄새 때문에 이 작업을 싫어했다. 그래서 접착제를 바르는 속도는 더디고, 통에 있는 접착제

오늘따라 접착제냄새가 다른 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머리도 살짝 아프고 어지러워서 얘길 하니 비와서 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이미 창문은 열려져 있다면서 가리킨 곳을 보니 창문은 활짝 열려 비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윽고 20여분이 지나자 공장 안 모든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아우성친다. 대형선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같이 일하는 형들도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는 이미 캐러멜처럼 응고가 된 채 종이에 바르게 되었다.

오늘따라 접착제냄새가 다른 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머리도 살짝 아프고 어지러워서 얘길 하니 비와서 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이미 창문은 열려져 있다면서 가리킨 곳을 보니 창문은 활짝 열려 비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윽고 20여분이 지나자 공장 안 모든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아우성친다. 대형선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같이 일하는 형들도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일을 쉬엄쉬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서로 다독이면서 작업을 계속한다. 코를 찌르는 작업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대충 마무리 짓고 일어서는데 쭈그려서 일했던 시간이 많았던지 머리가 핑 돌면서 현기증이 느껴진다. 서둘러 캐러멜빛깔 접착제를 정리해서 구석에 놓는데 머리를 쿡쿡 찌르는 것 같다. 바람 좀 쐴 겸 공장 밖으로 나왔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질 않는다. 오히려 접착제냄새가 계속 나는 듯하다. 식당을 가는 짧은 골목길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두통보다 어지럼증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이런 증상은 나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나타났다.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다. 입맛도 없고 무슨 맛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에 형들에게 "우리 본드에 취한 거 아니야?"라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하자 찌푸린 얼굴로 "그런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 세 명 다 어렴풋이 그럴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다.

"본드에 취하면 하늘도 날고, 공룡도 본다는데 우리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기만 하네. 이런 날 왜 작업을 시키는 거야!" 괜히 불평해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공장에는 아직 접착제냄새가 남아있다. 아주머니들도 냄새가 심하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은 계속된 채 점심시간은 마무리 지

어졌고 다시 작업이 진행된다.

다시 접착제를 든 통을 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손에 잡히질 않는다. 접착제냄새가 익숙해질 법한데 계속해서 코를 자극한다. 공장에서 접착제냄새가 빠지기만 기다려보지만 언제 빠질지 기약이 없다. 한 시간정도 더 작업을 하여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작업이 중단됐다. 인쇄문제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들린다. 공장장이 다른 공장으로 문의를 하러 간 사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기다리기로 한다.

짧은 휴식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도저히 서있기 힘들어서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있으니 형들도 옆에 와서 같이 눕는다. 가만히 누워서 눈앞에 보이는 전등을 보는데, 전등은 그대로 있고 내 주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누워있는데도 어지러워 눈을 감으니 이번엔 메스꺼움과 두통이 몰려온다. 그렇게 살짝 눈을 붙였다.

눈꺼풀이 무겁다. 눈이 부셔 살짝 뜨니 아직도 전등아래에 누워있다. 주위는 고요했고, 아주머니들이 난로 옆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들린다. 비는 거의 그쳐서 한 방울씩 떨어지기만 한다. 시계를 보니 거의 두 시간이 지나있고 형들은 아직도 옆에 누워 서 곤히 잔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상쾌했다. 약간의 두통은 남아있지만 어지럼증, 메스꺼움은 사라졌다. 또한 공장 내 가득했던 접착제냄새로 같이 사라졌다. 정말로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들에게 하니 우리가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한다. 잠시 후 형들도 다 일어났고, 형들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다. 이후 1시간동안 작업도 없이 우리는 수다를 떨면서 공장장이 오기만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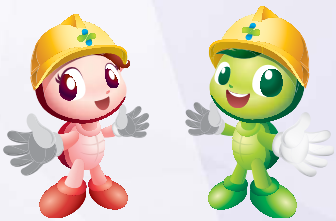
그 날 작업은 그렇게 일찍 끝을 내렸고 맞춰야할 물량도 다음날로 미루게 되었다. 공장장은 접착제냄새 때문에 공장의 모든 인원들이 힘들어해서 일을 서둘러

마쳤다고 한다. 우리는 바쁜 와중에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였고, 형들과 나는 본드냄새에 잠시 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날 이후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은 날씨 좋은 날에 한번 하고 끝을 냈고, 더 이상 속지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게 되어 접착제냄새에 취할 일이 없었다. 공장의 졸업앨범 성수기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지어졌고, 그날의 일은 공장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끝을 맺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례

Foreign workers accident case files

外国人劳动者负伤事例集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절단사고 _ 루칸

2014년 4월 거래처 납품을 끝내고 복귀하기 전 잠시 대기중에 손을 실수로 기계에 기대다가 롤에 말려들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좌측 제1수지 완전 절단상 진단을 받고 재접합 하였으나 좌 엄치 손가락 지간관절에서의 수지 절단 상태입니다. 일을 끝내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Finger amputation accident while working on the press _ Rokan

April 2014, before returning back from customer delivery while waiting for a moment leaned on the machine and hurt his hand by putting it into the roll accidently. The diagnosis he received from the hospital was to cut the 1st finger completely and the left thumb condition is to cut it from the inter-phalangeal joint. This accident occurred in an instant after work in a relax state.

压榨机作业中弄断手指 _ Rukan

2014年4月　给用户交货回来，返回岗位之前，稍做休息之时，把手伸向机器靠了靠，此时，手被机器卷了进去而受伤。医院诊断为左侧第一手指完全断伤，虽然做了衔接，但左手第一手指已经完全断了。这是工作后，稍作放松之时，瞬间发生的一场事故。

프레스 작업 중 손목 절단사고 _ 투이

3인 1조로 작업 중 작업물품을 꺼내 다른 작업현장에서 절단을 하고 돌아와 작업을 하려는 순간 같은 조 다른 근로자가 기계조작 실수로 기계가 작동되어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Wrist amputation while working on the press _ Tui

3 people worked together in 1 group, while working one worker removed the product from the machine and took it to the other place to cut, after coming back to the machine the other worker of the same group mistakenly turn on the machine which caused the wrist amputation of other worker after applying for the industrial accident received treatment and disability compensation. Presently it is under the civil suit for the claim of damages.

压力机作业中手腕骨折事故 _ Tui

分三人一组干活，拿着东西去别的车间把它切断后回来，刚要继续作业时，由于同组其他工人的操作失误，机器被启动运作，从而导致手腕骨折。后申请工伤疗养，获得补偿，现为进一步获得赔偿进行起诉中。

고온의 기계에 왼쪽 손이 끼는 사고 _ 로마출라

2013년 7월 사업장내에서 4호기 불량처리(온도 200도) 과정에서 손을 넣어 불량처리를 하다가 기계에 왼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화상 및 압궤상을 입었습니다. 손목 부위에 기능장해와 흉터가 남아 산재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Left hand got stuck in the heating machine _ Romachura

July 2013, while working poorly (temperature 200 degrees) in the company at unit 4, left forearm suffered burns and got crushed by getting stuck in the machine accidentally. Disability compensation received due to scar remained and malfunction in the wrist area.

左手被高温机器夹上 _ Romachurra

2013年7月　在车间内，用手处理高温机器（达200度）的问题时左手被夹伤，手腕部位留下残疾和伤疤，得到残疾赔偿。

가죽 생산 공장에서 작업 중 산재사고 _ 아디

2013년 8월 가죽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소기름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미끄러지면서 눈밑으로 튀어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안와내조직위탈출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외상성 전방출혈, 안검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Industrial accident while working at leather factory _ Aadi

August 2013, working in the leather producing factory while performing the job of removing beef tallow the accident occurred because the knife in hand slipped and stick out on the lower part of the eye. The diagnosis reports from the hospital showed laceration of the eye and rapture accompanied by orbital organizer escape, traumatic hyphema, eyelid laceration. Treatment received after applying for the industrial accident.

在生产牛皮的工厂发生工伤事故 _ Adi

2013年8月 在生产牛皮的工厂，清除牛油时，握在手中的刀滑落下来，崩到眼底，发生事故。医院的诊断结果是眼内外组织脱出并烧伤破裂，外伤性眼前房出血，眼部烧伤。之后，申请了工伤疗养，接受治疗。

용접작업 중 손가락 절단 하고 _ 카싸

2013년 6월 작업현장에서 전기공급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용접을 하던 중 좌측 엄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로 요양을 하였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보상금도 받았습니다.

Finger amputation while doing welding work _ Kassa

June 2013, at the job site for making parts of electricity supply, while performing welding task an accident occurred which caused the amputation of the left hand thumb.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 accident received treatment and disability compensation by the help of specialist.

焊接时手指骨折 _ Kassa

2013年6月　在车间做供电设备的配件，进行焊接时，左手拇指受伤，导致骨折。得到工伤处理后，接受了工伤疗养，在专家帮助下，还得到残疾赔偿。

가스버너 폭발로 화상 _ 이메란

오후 작업시작 후 가스버너 폭발로 안면부, 양측 상지, 양측 하지에 심부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7개월 정도 요양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Burn by the gas burner blas _ Imeran

In the afternoon after starting work gas burner blasted, inflicted with the facial part deeply burn on both sides' upper limbs up to 2nd and 3rd level. After applying for the industrial accident received treatment for approx. 7 months and also received the disability compensation with the help of experts.

煤气燃烧器爆炸而烧伤 _ 李美兰

下午的工作开始后，由于煤气燃烧器爆炸，面部，双侧上肢，两侧下肢受到深度2, 3度烧伤。申请工伤处理后，得到7个月的疗养，受专家帮助，又得到残疾赔偿。

전동지게차에 부딪쳐 다리 골절 사고 _ 칸 세르게이

2013년 8월 공장 내 화장실에서 작업현장으로 보행 이동 중에 맞은 편에서 주행하여 다가오던 전동지게차(3톤)의 키리지 부분에 우측 발목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행되었고 병원에서 우측 종골 골절, 외과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Leg broken accident by the hit of electric forklift _ Khan Sergey

August 2013, went to restroom located in the working site on the way back from the bathroom to the working place, the accident on the right ankle caused by the hit of drill part of the electric forklift (3 ton) approach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Application submitted for industrial accident after receiving the diagnosis from the hospital from calcaneus fracture and surgical fracture.

碰到电动运货车上大腿骨折 _ Khan Sergey

2013年8月　从工厂内的洗手间步行走向车间时，被对面开过来的电动运货车（3吨），撞到右脚腕，被医院诊断为右侧胫腓骨骨折，申请了工伤处理。

화장실 청소 중 미끄러져 골반 골절 사고 _ 림신순

모텔에서 일하던 중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 받아 수술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Hip fracture accident by slipping while cleaning the bathroom

_ Limsinsun

Worked in a motel, accident occurred while cleaning bathroom got slipped and fell down. Hospital diagnosed with right hip femoral neck fracture, took treatment and surgery, then received disability compensation by applying for the industrial accident.

清扫洗手间时滑到骨盆骨折 _ 林深顺

在旅馆干活，清扫洗手间时，不慎滑倒受伤，被医院诊断为右侧髋关节以及股骨轻度骨折，接受手术治疗，后申请工伤处理，得到残疾赔偿。

지게차 바퀴에 발목이 스치는 사고 _ 수닐

지게차 운전자가 물건 하차 후 뒤쪽에서 작업하고 있던 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지게차 뒤쪽 바퀴로 발목을 스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양과 골절,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The ankle rubbed accidently by the wheel of forklift _ Sunil

After taking off the stuff from the forklift the driver of the forklift did not realized me working in the rear and reversed the forklift due to which the left ankle got rubbed accidently by the rear wheel of the forklift. It caused left ankle fracture, left 2nd metatarsal fracture after receiving diagnosis industrial accident application submitted.

被运输车车轮压足，导致踝关节外伤 _ Sunil

运输车司机装卸东西，倒退时，没有发现我，把我的踝关节压伤，出现左侧踝关节骨折，左侧第二中指骨折，后申请工伤处理。

금형 작업 중 산재사고 _ 두미

스티로폼 성형기에 금형작업 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상하로 작동 중에 손과 손등이 금형기계 사이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2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 우측 손목부 척골 및 정중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3개월 동안 요양하고 손목부위에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ccident during molding work _ Dumi

After working on a styrofoam molding machine during the testing process the machine was working vertically, the hand and the back of the hand went into the machine and accident occurred. Diagnosed with the fracture of the right 2nd metacarpal resin body, right wrist spinal and median nerve injury. After the approval of industrial accident, 3 months treatment and disability compensation received for the disability remained in the wrist area.

用模具的作业中发生事故 _ Dumi

使用模具，使塑料泡沫成型后，测试的过程中，机器上下运作，手和手背不慎夹进去，拔不出而受伤。诊断为右侧第二手指手中骨手背骨折，右侧腕关节骨折及正中神经损伤。之后得到工伤认可，疗养了三个月。由于手腕留下活动障碍，得到了残疾赔偿。

프레스 실린더에 손이 압궤된 사고 _ 아투르

중고 의류를 압축 프레스에 프레스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의류를 투입하고 2차 투입 후 프레스 하는 중에 투입구 입구쪽에 손을 대고 다른 쪽을 보고 있다 내려오는 실린더에 손이 박스 안으로 밀려들어가 손이 압궤되는 손상을 입어 손가락에 심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산재 장해 6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재해를 가져왔습니다.

Hand crushed in the press cylinder accident _ Atur

For pressing the used clothes at compression press primarily put clothes and secondary in the middle of pressing put hand at the entrance and watching on the other side. The cylinder which was coming down pushed the hand into the box, crushed the hand and due to damaged fingers sever disability occurred. Disability of grade 6 was determin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arelessness for a moment brought a huge disaster.

被压力机汽缸压坏手 _ Atureu

把旧衣放到压缩机里压缩，放完第一次，投放第二次，把手放到投衣口看别处时， 手被汽缸压到箱子里出现严重手指外伤，残疾等级为六级。一瞬间的疏忽酿成了严重灾难。

프레스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 _ 틴나콘

프레스에서 제품 생산 작업 중 제품이 구멍에 잘못 끼워져서 손을 넣어서 맞추다가 발판 스위치를 잘못 밟아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병원치료를 받고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의 실수로 손가락 3개를 잃어버렸습니다.

Finger amputation accident during press work _ Tinn Ackon

During production process at the press the product incorrectly inserted into the hole, so while fixing it by putting hand stepped on the foot switch incorrectly and 2nd finger, 3rd finger, and 4th finger of the left hand cut in the accident. Treatment from the hospital for about 6 months with disability compensation received. Instantly, lost 3 fingers by mistake.

压缩作业中手指骨折的事故 _ Tinnakon

使用压力机的生产过程中有几个口错位，欲调整时，按错脚动按钮，出现第二，三，四个手指骨折。后来住院接受6个月的治疗，得到了残疾赔偿。瞬间丢失三个手指的惨重教训。

롤라에 손이 끼는 절단 사고 _ 장드너

2014년 6월 준비작업인 끈을 푸는 기계에서 작업 중 로라에서 손을 떼고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로라에서 미처 손을 떼지 못한 채 스위치를 눌러서 로라에 외손이 딸려 들어가면서 네 번째, 다선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손가락 장해에 대한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Amputation of Hand stuck in the roller accident _ Jang Deno

June, 2014, while preparing to work at the loose string machine, had to release hand from the roller and then press the switch but realized that while pressing the switch did not manage to remove the hand so an accident occurred by entering the hand into the roller cutting 4th and 5th fingers. By process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due to fingers loss received.

被机器夹伤手指，出现骨折 _ Zangdeuneo

2014年6月　用机器打开绳子的过程中，本应该在把手从机器上拿开的状态按按钮，却在没有及时拿开时按下，因此左手被卷入，第四，五手指骨折，后申请工伤处理，得到残疾赔偿。

1.5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 _ 박성룡

2014년 2월 13일 입사하여 다음날 사내에서 기계 조립중에 아시바 위에서 발을 잘못 짚어 약 1.5m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왼쪽 발목 부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경비골 원위관절내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산재신청하여 6개월간 요양하였습니다.

Accident of falling from the height of 1.5 meters

_ Park Seong Reong

Feb, 13, 2014, the next day after joining the company, while assembling the machine in the company did not put the foot on the ahsiba(foothold) properly and fell from the height of about 1.5m because of losing the center, so the left ankle area was broken in an accident. The hospital diagnosed the fracture in the left ankle tibiofibular 원위관절내 분쇄골절을. After processing the industrial accident 6 months treatment received.

从1.5米高处坠落的事故 _ 朴成龙

2014年2月13日，是上班第一天。第二天，组装机器时，在机器台版上脚扑空，从1.5米高处失去重心掉了下来，致左脚腕部位骨折，诊断为左侧足关节胫腓骨远端关节粉碎性骨折，后申请工伤处理，疗养了6个月。

공장에 불이 나서 전신화상 _ 레얀

기숙사에서 잠이 깨어 새벽에 공장 마당에 나왔다가 공장내부에 불이 난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 후 초기진화를 시도하다가 강한 불길이 옮겨 붙어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 화염 화상(심재성 2도-3도, 40%)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Whole body burn because of fire in the factory _ Rayan

After awakening up from the sleep at dawn went in the factory yard after confirming the suspected fire in the factory, while attempting the initial evolution strong flames came and burn the whole body. Diagnosed whole body burned with fire (profundus 2-3 degree, 40%), by submitting application for the industrial accident received the approval for 2 years treatment and even 2 years later still receiving the treatment.

工厂失火，全身烧伤 _ Reyan

大清早睡醒后，从宿舍出来，就在工厂院子发现工厂内好像着火了。看到确实着了之后，想趁火势小的时候灭火，没成想大火扑来，全身烧伤，被诊断为2-3度，40%的烧伤。得到了工伤认可，两年后的现在还在治疗中。

지게차에 다리가 끼는 재해 _ 김호

평택공장에서 기계 설치 작업을 위해 기계차 작업 중 지게차에 다리가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로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이 협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고지가 안산이라 다리 응급처치만 하고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와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 족부 2,3,4,5중족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ccident of leg stuck in the forklift _ Kim Ho

For the machine installation work at a factory in Pyeongtaek while operating the forklift the leg got stuck in the forklift and accident occurred. Because the hometown was Ansan so, went to the nearby hospital by car received the first aid treatment for the leg, because it had to take a long time to come to the hometown therefore, after taking the first aid treatment, moved to Ansan and is hospitalized. Diagnosed with left foot 2,3,4,5,metatarsal fracture.

被运输车夹伤腿 _ 金虎

在平泽工厂内设置机器的过程中，腿被运输车夹伤，随即用轿车送往平泽的医院接受治疗，但因医院小，等的时间长，而且由于登录证地址是安山，所以，做了应急措施后，就搬到安山的医院，住院治疗，诊断为左侧足部2. 3. 4. 5足背骨折。

장갑과 기계에 끼여 손가락 골절 사고 _ 티사라

2014년 1월 벽돌 불량제품 선별 작업 중 불록제품이 실려 있는 파렛트와 파렛트를 이송시키는 피더사이에 장갑이 끼면서 장갑과 함께 손가락이 들어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피부결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ccident of finger fracture due to the glove wedged in the machine _ Tisara

Jan. 2014, while screening the defective brick product, while transferring the pallet carrying block product with another the pallet the glove caught between the feeder and along with the gloves the fingers also got injured. Received diagnosis with open fracture of distal phalanx in the 3rd right resin, 3rd right resin skin defect.

戴着手套被机器夹伤 _ Tisara

2014年1月　从一堆砖头里选出不良品的作业中，手套被卷入移送托盘设备的同时，手指也被卷入而负伤，诊断为右侧第三手指远端开放性骨折，右手第三手指外皮严重损伤。

라인 작업 도중 허리 다침 _ 김덕명

인천소재 신축공사 현장 15층 옥상에서 웅벽에 올라가 라인 맞추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 2.5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허리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함.

Back hurt during the line work _ Kim Deok Myong

A new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Incheon while working at the 15th floor for fitting line, missed the footstep from the 2.5m height and by falling down the waist collided with the ground and occurred industrial disaster.

干活时伤腰 _ 金德明

在仁川的建筑公司工地15楼，从楼顶爬到保护墙干活时失足，从2. 5米高处下坠，腰部与地面碰撞时受伤。

신축공사현장에서 손가락 다침 _ 최석남

서울시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지하층에서 폼(450×500, 무게 20kg)을 쌓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폼이 내려지고 손을 빼자 폼에 우측 손가락이 폼에 끼여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Finger wounded at the new constructed _ Choi Seok Nam

A new residential complex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Seoul while working in the basement floor for stacking platform (450 x 500 weight 20kg) tried to take the hand out after putting the platform down which wedged his finger of the right hand and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在盖新楼的施工现场弄伤手指 _ Choi Seok Nam

在首尔市某建筑公司工地地下搭二十公斤重的架子的时候，架子倒塌，右手指被夹受伤。

석고 위에서 추락함 _ 강명기

서울시 소재의 주택 신축현장 주차장에서 석고위에서 줄자로 도하리 업무도중 앉자서 뒷걸음치다가 2.4m 높이에서 지면아래로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함.

Fell on the Plaster _ Kang Myoung Ki

In Seoul while working on the way Dohari at the new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 parking lot with the measuring tape backslide while sitting at the height of 2.4m fell down on the groun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从石膏板上坠落 _ 姜明起

在首尔市的某住宅建筑工地停车场，在石膏板上工作往后退时，不慎从2. 4米的高处掉下来摔伤。

아파트 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 _ 김해일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 7동 1층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자재를 들고 이동중에 다리에 반샌이 걸려 자재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함.

Falling from apartment site accident _ Kim Hae Ill

The new apartment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Kyoungi Do Namyang City on the 1st floor of 7 dong, while doing slab work moved by holding the material and the material hit the structure in the bridge which caused industrial accident by falling.

在盖楼工地摔伤从金海日 _ 金海日

在京畿道某盖楼工地7栋1楼的作业中，拿东西移动时，被脚底的东西绊倒，正好碰到机器上受伤。

프라스틱 프레스에 손가락 절단 _ 찬수남

야간업무시간인 23시경 경북 김천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사출된 프라스틱을 프레스로 절단하는 작업 도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Fingre cut at the plastic press _ Chan Soo Nam

Working in the night shift around 11 p.m. the factory located in Kyoungbuk Kimcheon city, during the work of cutting the injected plastic by press industrial accident of cutting finger by the press occurred.

被塑料压力机弄断手指 _ Cansunam

在夜间11点的京北某工厂，用压力机裁塑料时，被机器弄断手指。

건축 현장에서 좌측 발을 다침 _ 오학선

전북 전주시 소재의 초등학교 신축현장에서 발판을 단도리하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된 우마에 올라가서 있던중에 큰 샤뽀도(무게 30kg)를 드니 이때 우마 중간이 접히면서 접힌 부분에 좌측 발이 찍혀 산업재해가 발생함.

Left foot wounded at the construction site _ O Hak Seon

New construction site of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onbuk Jeonju city, for foothold preparatory work climbed on the aluminum horse with big support (weighing 30kg) while he was on the horse, it folded from the middle and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by stabbing the left foot in the folded part.

在建筑工地弄伤左脚 _ 吴学森

全罗北道泉州市新建小学的施工现场，在铝制的台板上，抬30公斤重的东西时，铝制板折断，左脚被夹住，发生事故。

물기 많은 바닥에서 미끄러짐 _ 김월향

서울시 소재의 식당 내에서 방안의 테이블을 다 닦고 바닥에 있는 테이블을 닦기 위해 바닥에 있는 슬리퍼를 신으려고 발을 디딜려고 할 때 청소가 다되어 물기가 많은 바닥에 있는 슬리프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Slipped on very wet floor _ Kim Weol Hyang

In the restaurant located in Seoul, wiped the all tables in the room then to clean the table on the floor took a footstep to put on the slippers after cleaning all fell when slippers slipped on the wet floor which caused the industrial accident by wounding the ankle.

在湿地上滑到 _ 金月香

在首尔市的一家食堂，擦完炕上的桌子，要下地擦地下的桌子，穿拖鞋脚落地时，由于刚清扫完的地很滑，拖鞋滑出去的同时人也摔倒，脚腕受伤。

공장신축 현장에서 발등을 다침 _ 최일련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공장신축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합판(1200×2440, 무게 30kg)을 위에서 아래로 옮기던 도중 위에서 합판을 내리는 동료와의 싸인이 맞질않아 밑에 있던 재해자의 발등에 합판이 떨어져 산업재해가 발생함.

Feet wounded in the new factory site _ Choi Ill Yeon

The new factory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Kyoungi Do Paju city, while colleagues and plywood (1200 X 2440, weighing 30kg) lowering down from the top, the colleague on the upper side did not gave proper sign due to which the worker underneath the plywood got wounded and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when the plywood fell on the feet of victim.

在施工现场弄伤脚背 _ 崔日蓮

京畿道播州市盖新楼的工地上，和同事一起从上往下搬三十公斤重的合板时，互相没有领会对方意图，不慎弄掉，掉到脚背，发生工伤。

신축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_ 정용철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신축건설현장에서 빠루를 이용하여 폼을 뜯는 바라시 작업을 하다가 폼에 박혀있는 빠루쪽으로 폼이 떨어지면서 빠루를 잡고 있던 손가락을 폼(600×1200 무게 20kg)이 가격하여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Finger fractured at new construction site _ Jeong Yong Cheol

A new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Kyuongsangnam Do Sancheong Goon, while using pick axe to disassemble the platform, the platform broke from the side where the pick axe was lodged and platform (600 X 1200, weighing 20kg) hit the second finger of the left han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of fracture occurred.

在工地工作时手指骨折 _ 郑勇哲

在庆尚南道某郡的新楼施工现场用起钉器扒架子时，二十公斤重的架子向起钉器方向散架，落到手上，致使左手第二个手指骨折。

건설현장에서 엄지 손가락을 다침 _ 김용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5층짜리 신축건설 현장 4층에서 폼13개를 지탱하고 있는 삿보도를 빼는 작업을 하는 도중 폼13개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발에 나무토막에 걸려 미쳐 피하지 못해 폼이 넘어가면서 재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가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함.

Thumb wounded at construction site _ Kim Yong Woon

5 floor new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Kyoungi Do Goyang city, at the 4th floor while working for taking off the 13 platform which were supporting the support, the victim tried to prevent the 13 platform to fall forward but the wooden block fell on the foot and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by hitting the victim' s left thumb.

在建筑工地弄伤拇指 _ 金龙云

在京畿道某市五层新楼建筑工地的四楼，支撑十三个架子的柱子倒塌时，没来得及躲闪，被塌过来的架子弄伤拇指。

마늘 손질 도중 칼에 손가락 베임 _ 한순여

서울시 소재의 횟집 주방내의 싱크대에서 껍질이 잘 까지지 않은 생마늘을 물에 불려놓아 이를 껍질을 까기위해 우측 손에 사미시 칼을 잡고 좌측 손에 생마을을 잡고 마늘을 까다가 좌측 손가락이 마늘과 함께 칼에 베이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함.

Got a knife cut on the finger while trimming garlic

_ Han Soon Yeo

Sushi restaurant located in Seoul, at the sink of the kitchen placed the fresh garlic to peel that is not watered well, to peel them off Sami held the knife in the right hand and fresh garlic in the left hand and while peeling the garlic, cut the garlic along with left hand finger thus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扒蒜时伤手 _ 韩顺如

在首尔市的一家卖生鱼片的饭店厨房内，扒泡过水的生蒜。蒜不好扒，右手拿着刀，左手抓着小蒜用力时，出现手外伤。

커터칼이 빗나가 왼쪽 손을 다침 _ 김수천

인천시 소재의 한옥 신축현장에서 천장에 올라가서 스티로폼이 튀어나와 이를 자르기 위해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스티로폼을 위에서 아래로 힘주고 자르다가 빗다가면서 좌측 손을 가격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함.

Left hand wounded by digressing of cutter knife

_ Kim Soo Cheon

At new Korean style house construction site located in Incheon, to cut the popped out styrofoam went on the roof top, held the cutter knife in the right hand and cut the styrofoam with force from top to downward and by the digression the left hand got hit thus th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使用刀具时失手伤左手 _ 金秀天

在仁川的盖韩国传统建筑的工地的房顶，塑料泡沫冒了出来，为了把它切掉，右手紧握刀具，向下用力时，不慎把手划伤。

중화요리 면 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절단 _ 김순봉

서울시 소재의 중화요리 주방에서 면을 기계로 밀다가 면과 우측 손가락이 기계에 같이 빨려들어가 손가락 절단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Right side finger cut by the Chinese noodle machine

_ Kim Soon Bong

In the kitchen of Chinese cuisine located in Seoul, while pushing the noodles, the right finger went along with the noodles into the machine, suffered the industrial accident as finger amputation occurred.

被中华料理屋的制面机弄断手指 _ 金顺峰

在首尔市一家中华料理的厨房，做面条时，右手不慎和面一同进入机器，发生手指骨折事故。

물탱크 안에서 추락 사고 _ 이광진

경기도 소재의 병원 지하물탱크실내에서 물탱크 외벽을 청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6M높이에서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Accident of falling in the water tank _ Lee Gwang Jin

Hospital located in Kyoungi Do,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while cleaning the underground water tank from inside and outside by slipping from the ladder of 6M height and fell on the ground.

在水箱内坠落 _ 李光真

京畿道一家医院的地下水箱内，为清扫水箱墙壁，爬在六米高的梯子上作业时坠落，发生事故。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침 _ 이용숙

서울시 소재의 모텔 객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좌측손에 수건을 들고 객실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다 방안쪽의 문이 복원력으로 닫치면서 우측 2번째 손가락이 문과 문뜸에 끼워져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Got fingers wedged in the door _ Lee Yong Suk

As the door shut down from dynamic stability, hurt the second finger at the right-hand side by getting jammed between the door and the chink in the door when cleaning a motel room in Seoul.

手指夹在门缝上受伤 _ 李勇淑

在首尔市一家旅馆的客房，左手拿着毛巾，开房门打扫卫生时，房间门自然关闭，右手中指被夹在门和门框之间受伤。

리모델링 현장 사다리에서 추락 사고 _ 박영실

서울시 소재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난 후 내려오다가 3M되는 높이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Fell from the ladder in a remodelling field _ Park Young Sil

Coming down from a ladder after finishing painting the external walls of a building in a remodelling field in Seoul, fell down from the 3 meters high onto the ground as the ladder suddenly slipped.

在房屋改造工地从梯子掉下来摔伤 _ 朴英实

在首尔市一家改建公司的现场，爬梯子给外墙刷漆，完工后下来时梯子滑出去，随之从三米高空处掉下来受伤。

석재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 _ 이문학

서울시 소재의 건축현장에서 660×1200, 무게 30kg이 되는 석재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를 들고 목적지에 내려놓을려는데 바닥이 눈과 모래에 깔려져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석재판와 함께 손가락이 지면에 찧이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Finger stuck under a stone board _ Lee Moon Hak

In a construction site in Seoul, as carrying a stone board(660?1200, 30kg) and putting it down onto the destination, momentarily slipped and fell forward due to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and sands, got finger stuck between the board and the ground.

手夹在石材版上弄成挤压伤 _ 李文学

在首尔市的一家建筑工地，搬运30斤重的石板，把它移到目的地，要放下时，由于地上有雪要滑倒了。一瞬间，石板和手同时落地，挤压手指，出现工伤事故。

순대 기계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_ 이태관

서울시 소재의 순대집 주방에서 순대를 만들기 위해 순대속을 기계에 밀어 넣는 작업을 하는 도중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산업재해를 당한것임.

Finger caught in a Sundae(Korean sausage) machine

_ Lee Tae Gwan

Hurt a finger as it got caught into the machine when putting the ingredients into the machine to stuff and make sundae in the kitchen of a sundae restaurant in Seoul.

手指被拽紧制血肠的机器里 _ 李太关

首尔市的一家卖血肠的饭店厨房里，把血肠馅放入机器的过程中手指滑进，酿成事故。

위에서 떨어지는 칸막이 유리에 어깨를 다침 _ 황재성

인천시 소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대를 다른데로 옮기다가, 4m 되는 높이에서 가로600 세로1000 무게 12kg 칸막이 유리가 떨어지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것임.

Hurt shoulder by glass falling from above _ Hwang Jae Sung

Got hit and hurt by a partition glass(660?1000, 12kg) falling from a height of 4 meters in a construction site in Incheon.

隔段玻璃下坠，弄伤胳膊 _ 黃在成

在仁川市的一家建筑工地搬东西时，从4米高处，十二公斤重的玻璃掉了下来，刚好砸到被害人身上，造成事故。

못 질하다가 추락하여 발목 인대 파열 _ 김천용

서울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던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못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발목 인대만 파열되는 사고였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kle' s ligament ruptured from a fall while driving a nail

_ Kim Cheon Yong

Fell 3 meters while working as a carpenter at a officetel construction site in Seoul. Made a false step while driving a nail, fortunately only ankle' s ligament got ruptured. Had a good treatment and got back to work at the site.

钉钉子作业中掉下来，造成踝关节韧带破裂 _ 金天勇

在首尔的单身公寓建筑工地干木工活，不慎掉下来。钉钉子时，脚扑空酿成事故，幸亏只伤到脚部韧带，治疗后得以返回岗位。

공구 상자에 발등 뼈에 금이 감 _ 담미거

연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공구가 들어 있는 상자가 발 등에 떨어져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단 가공 하는 공장인데, 기계 위에 놓여져 있던 상자를 동료가 잘못 건드려 제 발등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Instep bone cracked by a tool box _ Dammika

Got an instep bone cracked by a tool box while working at a factory in Yeon Cheon. It' s a fabric processing plant and a fellow worker mistakenly hit the tool box on a machine and it dropped onto the ankle.

被工具箱划脚，足背骨受外伤 _ Dammigeo

在仁川工厂干活时，工具箱掉到脚背上，足背骨受外伤。这是一家布料加工厂，同事不小心把机器上的箱子碰掉，酿成这样的后果。

금속이 발가락에 떨어지는 사고 _ 모하메드

경기도 소재 한 금속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금속을 동료와 함께 나르는 과정에서 금속이 발가락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metal fell on toes _ Mohammed

Worked at a metal processing plant in Kyoungi-do. While moving a heavy metal with a fellow worker, the metal fell on the toes.

金属器械掉下来受足趾外伤 _ Mohameteu

在京畿道的某金属加工厂，和同事一起抬重金属器械时，滑落到脚趾上造成事故。

동료와 물건을 나르다 발목 골절 _ 비조이

경기도 광주 소재 비닐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동료와 물건을 나르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2~3개월 정도 기브스를 하면서 일을 못했습니다. 제 부주의지만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kle fractured while carrying products _ Beejoy

Worked in a vinyl processing plant in Kyoungi-do, Gwangju. While carrying products with a fellow worker, the foot slipped and fell, hurting the ankle. Fortunately it wasn' t a big accident, but couldn' t work for 2-3 months due to wearing a cast. Feel grateful for being able to be handled as an industrial accident even thought it was my mistake.

和同事抬东西时伤脚腕，造成踝关节骨折 _ Bizoi

在京畿道光州的塑料布加工厂，和同事一起抬东西时，不慎滑倒伤了脚腕。幸亏不严重，戴了两三个月的假肢。说起来是本人不慎，所以非常感激能得到工伤赔偿。

벨트 기계에 장갑이 빨려들어감 _ 수겡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벨트 기계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재빠르게 기계 작동을 멈춰 검지 손가락 끝부분만 절단되었습니다. 만일 조치가 늦었더라면 손가락 전체가 잘릴 뻔했습니다.

Glove sucked into belt machine _ Sugang

Glove sucked into a belt machine when working at a factory in Incheon Namdong industrial complex. Fortunately, a fellow worker quickly stopped the machine and only the tip of the index finger got cut off. The whole hand could' ve been cut off if it hadn' t been fast enough.

手套卷到机器里 _ Sugel

在仁川的某工厂干活时手套卷进机器里，幸亏有同事及时关闸，只伤到一个手指的末梢，造成骨折，再晚一步整个手指就没了。

염색 기계고장으로 오른팔 화상 _ 알리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3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어느날 염색기기가 고장나면서 스팀에 오른 팔 전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 받아 치료중에 있습니다.

Right arm scalded due to dyeing machine breakdown _ Allie

Worked at a dyeing factory. Had been working for about 3 years, and one day, the dyeing machine broke down and got whole right arm scalded by the steam. Fortunately the face hadn' t been scalded at all. Got an industrial accident approved and is under treatment.

染色机出故障，右臂烧伤 _ Malli

在染色长干了三年的活，有一天，染色机出故障，整个右臂被喷出的蒸汽烧伤，幸亏没伤到脸上。判定为工伤，正在治疗。

중화요리 면 기계에 손가락 들어가는 사고 _ 차순옥

경기도 소재 한 중화요리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면 뽑는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산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Finger caught in a noodle machine _ Cha Soon Ok

Got a finger caught in a noodle making machine while working in the kitchen of a Chinese restaurant in Kyoungi-do. Waiting for the approval of an industrial accident, hoping to be able to get it solved fast and get back to normal.

在中华料理干活时被制面机弄伤手指 _ 车顺玉

在京畿道的一家中华料理饭店厨房干活时，手指滑进制面机酿成事故。申请工伤后，等待结果，当事人希望早日回到日常工作中去。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_ 최옥란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도중 바닥에 있던 물건을 밟고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개월간 손목에 기브스를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다에 한 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rist fractured from a fall _ Choi Ok Ran

Did cleaning in a motel in Seoul. While cleaning, stepped on the thing the floor and slipped, getting a wrist cracked. Wore a cast and got treatment for 2 months, and got back to normal. Getting a physical therapy once a month these days.

不慎摔伤 腕关节骨折 _ 崔玉兰

在首尔的一家旅店工作。打扫卫生时，不慎踩到东西摔伤，导致腕关节骨折。经过两个月的治疗，明显好转，逐渐恢复正常，最近在做一月一次的物理治疗。

못에 찔리는 사고 _ 최진성

신축 빌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는 못을 밟았는데 못이 발바닥에서 발등을 뚫고 올라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파상풍 주사도 맞았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Pricked by a nail _ Choi Jin Seong

Worked at a villa construction site. While working, stepped on a nail on the ground, and the nail went through from the sole to the instep of the foot. Got treatment in the ER of a hospital near the site and got a tetanus shot, getting back to a normal life.

被钉子扎伤 _ 崔振兴

在高楼建设工地干活时，不慎踩到掉地的钉子，钉子穿过脚掌，冒出脚背。事后到工地附近的医院急诊室检查治疗，打了破伤风的针，现在恢复了正常。

기계에 끼어 새끼 손가락 절단 _ 핫산

경기도 소재 한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 새끼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승인 받고 현재 요양 치료 받고 있으며, 조만간 회복되는 대로 다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inky finger cut off by getting jammed in a machine _ Hasan

A pinky finger got caught in a machine and got cut off while working in a fabric plant in Kyoungi-do. Approved for an industrial accident and having a recuperation treatment. Likely to get back to work as soon as I get full recovery.

手指夹伤，导致骨折 _ Bassan

在京畿道纤维工厂干活时，手指卷入机器，导致小指骨折。得到工伤认可后，现在疗养中，以乐观的态度等待恢复正常。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2014 근로자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펴낸곳 _ 한국NGO신문
주 소 _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20 대원빌딩 10층
전 화 _ 02) 775-5541
팩 스 _ 02) 775-5506

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